



그리드위즈 기업설명회(IR) 주요 내용

주식회사 그리드위즈 | 2026년 6월 10일 |

AI 데이터센터 시대, 전력은 생산 원자재입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전력은 절감해야 할 비용에 가까웠지만, AI 데이터센터가 'AI 팩토리'로 진화하면서 전력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원자재로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은 컴퓨팅 성능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드위즈는 지난 13년간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 ESS,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을 운영하며 에너지 데이터와 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예측, 전력 비용 최적화, 수요반응(DR), ESS 연계, VPP 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 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의 병목, 전력 사용량 변동, 전력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에너지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는 유연성 자원 공급과 전력시장 참여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R 입찰과 전력시장 운영을 함께 활용해 전기요금 자체의 영향을 줄이고, 데이터센터의 유휴 전력 자원을 ESS, DR, VPP와 연계해 새로운 수익으로 전환하는 모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이 곧 매출과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는 에너지 운영 효율이 곧 고객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V2G — 전기차를 전력망 자원으로 바꾸는 핵심 사업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에 기여하는 분산자원으로 활용합니다.

V2G(Vehicle-to-Grid)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필요할 때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다. 그리드위즈는 창업 초기부터 전기차 충전 통신 기술과 충전기 개발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현재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양방향 충전기까지 제품·기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약 1GWh 규모의 ESS 운영 경험과 24시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V2G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전기차 충전기, ESS, DR, VPP를 연계한 수익화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 — 저장을 넘어 운영 역량이 중요한 시장

국내 약 1GWh 규모의 ESS를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설비입니다. 고가의 자산인 만큼 단순 설치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드위즈는 ESS를 DR,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패턴과 연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설치됐으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ESS 자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운영 자원으로 편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그리드위즈의 DR 시장 운영 역량과 결합될 때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관리(DR) — 전력망 안정화와 시장 확대의 핵심 기반

국내 DR 시장 약 47% 점유율, 약 18,000개 고객 접점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관리(DR)는 전력 공급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줄인 전기 사용량을 발전량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망 변동성이 커지면서 DR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는 산업체 중심의 DR뿐 아니라 ESS 기반 DR, 전기차 충전기 기반 DR, 건물 냉난방 설비 기반 DR 등으로 자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호주·중국·일본을 주요 해외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 추진 내용
미국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관리 솔루션 관련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JV) 설립 추진. 초기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중심,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운영 사업으로 확대 목표
호주	현지 법인 설립 및 투자 승인 완료, ESS 프로젝트 추진. 우선 약 100MW 규모 ESS 자산 확보 목표, 장기적으로 1GW까지 확대 검토.
중국	전기차 충전기 및 전력전자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영업 거점 준비.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목적.
일본	한국의 DR·ESS·전기차 충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 내 사업 기회 검토.

수익성 개선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자릿수 성장, 2027년부터 보다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리드위즈는 상장 이후 판관비 절감과 사업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축소됐으며, 별도 기준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DR 사업 특성상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겨울에 매출이 증가하는 계절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3·4분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DR 시장 확대,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 기존 ESS 자원 활용, 호주 ESS 사업, V2G 시장 개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통합 운영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증가, 전기차 보급, ESS 수요 증가는 전력망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그리드위즈가 보유한 에너지 데이터, 운영 플랫폼, 고객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드위즈는 DR, ESS, 전기차 충전, 재생에너지 연계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운영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회사의 미래 전망에 관한 내용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